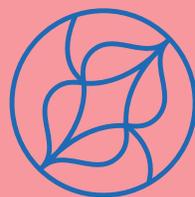


수능영어 어휘, 구문, 독해 지침서 by Shean.T

2021

KISS

Guide Book



KISS 영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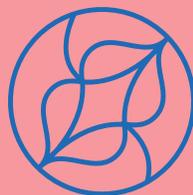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Guide Book



이 책은 선티 교재 및 강의를 처음 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고1 때 영어 모의고사 5등급을 받던 사람이, 고3 때는 1등급을 받고, 삼수 때는 밥먹듯이 100점을 받고, 대학에 와서는 수능영어를 넘어 영어의 끝판왕인 professional 통역사(통역장교)까지 이룬 사람이 쓴 것이고, 무엇보다 최근 몇 년 수능영어 출판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굳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수능영어'의 각 분야에 대한 선티의 insight와 direction이 담겨있습니다. 잘 탐독하셔서, 수능영어 및 선티 교재, 수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길 바랍니다.



KISS 영어연구소

KEEP IT SHORT AND SIMPLE

목차

INTRO	7
Chapter 1 어휘	13
Chapter 2 구문	31
Chapter 3 독해	67

Intro

1. INTRO A
2. INTRO B



키스 가이드 북



INTRO A: 수능영어란 무엇인가?

수능영어가 아닌, 영어에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이 있다. 앞 두 영역은 수동적 활동, 뒤 두 영역은 능동적인 활동이다. 수능영어는 이 4개의 분야 중 reading, 즉 '독해만 물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평가원 듣기는 이 교재 / 수업을 학습하는 학생들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정상(미안.)이다. 그럼에도 듣기가 부족한 친구라면 지금 당장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의 듣기 저자이기도 한 김희훈 저자님의 듣보잡을 구매해 학습한 후 올해 EBS 영어듣기 교재를 부단히 학습하시길 바란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수능 영어를 한다는 말은 영어독해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위 문장을 좀 뜯어보자. 둘로 나누면 '영어로 된 하나의 지문을 읽고 /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행위가 된다. 수능영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영어를 모르면 애초에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그러니 제발 어휘 암기와 문장 해석을 게을리 하지 말자.**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사기꾼이다. 영어 단어를 모르고 해석을 못하는데 문제를 푸는 것과 히브리어 문제를 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수능 지문의 모든 단어를 알고, 모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정 수준은(지문의 7.80% 이상) 단어를 알고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고2 지문과 고3 지문, 그리고 수능 지문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내가 고2 때 지문 단어, 문장의 7, 80%를 알아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수준으로 고3을 올라오면 지문의 단어와 문장을 5, 60%밖에 알지 못하니 탈탈 털리는 것은 당연지사.

정리하자. 수능영어는 수능+영어인데, 우선 이 '영어 실력'부터 고3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이를 활용해서 '수능독해를 할 수 있다는 것. 단계로 치면 '단어 암기' → '문장 해석' → '지문 독해'가 되겠다. 등급이 낮을수록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의 비중이 훨씬 높아야 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좀 더 지문 자체의 이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단어 암기

지문 독해



문장 해석





INTRO B: 무엇으로 수능영어를 공부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외운 단어로 열심히 문장 해석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영어가 되는 상태에서 수능영어 지문을 독해하면 된다. "아니 쌤, 그러면 다시 단어장 파고 구문책 파야 하는 건가요? ㅠㅠ" 노노. 단어장만 파고 구문책만 파는 행위는 고2 때까지 하는 것이고, 절평영어 70점 이상인 고3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다. 셉티가 원하는 것은 '총체적 학습'이다. 무슨 얘기가, 단어장 따로, 구문책 따로, EBS 교재 따로.. 이런 게 아니라, EBS 및 기출 지문에 있는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어휘, 해석 학습도 하자는 얘기다.

'총체적 학습'

현 수능영어 체제에서는 이 총체적 학습을 '특히 EBS 지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수능영어 킬러 문항 중 7지문이 EBS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기에 (2022학년도부터는 그 해 6평을 봐야 알 수 있다), EBS 지문들로 부단히 단어를 외우고 문장 해석 연습을 하며 '영어 공부를 하며 영어 실력을 늘리면, 수능날 그 지문이 또 보일 것이고 이 심리적, 시간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키스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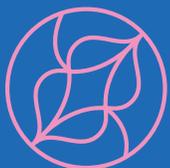


이렇게 EBS로 어휘와 해석을 늘리고, 마지막 단계인 '지문독해'를 수능 기출로 하는 것이다. 당연하다. 수능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기에 '수능 지문'은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가를 알려면 수능 기출로 해야 한다. 이미 고3 수준의 단어, 해석력을 갖추었다면 이 마지막 단계는 '금방'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능영어 자료는 EBS 교재와 기출이라 할 수 있고, 둘의 비율은 7:3이 적당하다.

'EBS 7 기출 3'

선티 수업의 중점은 '지문독해'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은 전적으로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강의 장점은 이것을 강제로 '관리해준다'는 데 있다. 반면 지문독해는 혼자하기가 힘들다. 이제 단어도 알겠고 문장 해석도 어느정도 하겠는데, '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 길을 명확하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내 역할이며, 그것이 KISS LOGIC이라 할 수 있겠다. KISS LOGIC에 관해서는 '독해' 부분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어휘, 해석, 독해 순으로 한 영역씩 찬찬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영어연구소

Chapter. 1

어휘

1. What.

2. Where. When.

3. How.



키스 가이드 북



Chapter 1. 전국 수험생 99.9%는(한 0.1% 사이고는 있을 수 있다) 영단어 암기를 싫어한다. 나도 싫다. 내가 절실한만큼 외우는 거다 절실한만큼. 영단어를 외우는 것은 사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역사 과목처럼 이것을 외우면 나오겠지라는 확신이 잘 없고 범위가 끝도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 이 영단어야 말로 시험 100점을 받으려면 150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 막연함을 견디고 외우는 것은 절실함밖에는 없다. 자신이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면, 응당한 노력을 하자. 특히나 의치한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수능영어 어휘 암기는 baby인 수준의 암기를 대학에서 할 테니 아 지금은 감사한거구나 꺄꺄하고 마음을 고쳐먹도록 하자. 영어 등급 안 나와서 영어를 임의로 한 등급 올렸을 때 정시 지원칸 색깔이 빨주노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나중에 울지 말자.

1. What. 무엇을 외울 것인가.

앞서 상술했듯 본인이 절평영어 70점 이상 수능 수험생이라면 따로 단어장을 추천하지 않는다. 단어장 좀 그만 사자. 그래도 굳이 하나를 갖고 싶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수능영어 단어장. 없다면 올해 EBS 연계교재 단어장을 추천한다. 이제는 단어장에 그만 집착하고, EBS 지문에서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따로 적어 외우도록 하자. 그것이 나에게 최적화된(optimized) 최고의 단어장 아닌가? 기본적으로 마주치는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닥치는대로 외우도록 하자. 단어는 총알이다. 다다익선이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든 외우는 단어를 줄여보려고, '각주 단어도 외워야 해요?'라고 물어보는데, 케바케다. 정말 잘 안 쓰이는 자잘한 단어인데 각주라면 안 외워도 되지만, 기출이나 EBS에서 분명 왕왕 마주치고 각주가 아닐 때도 있는데 각주인 단어도 있다. 따라서 이걸 구분하면 좋는데.. 쌤에게 물어보면 가장 좋고, 등급이 1, 2등급 정도 나온다면 나름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해당 단어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인지, 특수한 단어인지.



'나만의 단어장'

2. Where. When. 언제, 어디서 외울 것인가.

Anywhere. Anytime.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본 중학교 단어 및 고1 단어까지 외워야겠지만, 현 수능영어 3등급 이상 정도라면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따로 시간내는 시간은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 EBS, 기출에서 따로 옮겨적을 때'뿐이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 적혀 있는 단어장이 나에게 최적화된 단어장이 아닌가? 아래 셉티가 수험생 시절 외웠던 단어장이다. 수능 전과목 거의 만점을 받았던 고등학교 선배가 전수해준 것으로, A4 용지를 16등분으로 접어서 하이테크 0.25로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한글 뜻을 적은 것이다. 엄지로 한글 뜻을 가리고 외우면 된다.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ㅎㅎ. 이 자신이 모르는 단어만 적혀있는 단어장을 '언제 어디서나' 외우는 것이다. 이동할 때, 쉬는 시간에, 쌤이 판소리를 길~게 하실 때, 화장실에서(제일 잘외워집니다.), 셉티는 밥먹을 때도 양치 할 때도 외웠는데 이건 소화가 안된다는 친구들도 있으니 취사선택하시고.

그럼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해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해요. 자신이 절실하다면. '단기간에 급상승하고 싶다면.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무난 무난하게 공부해서~ 수능에서 무난한 점수 받고 싶다~ 하면 안 하셔도 된다.'



키스 가이드 북



세상에 군대 빼고 강제는 없다. 이미 자기는 중학교, 고1,2 시절 단어 미친듯이 외워서 어휘력이 수능 수준을 상회한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유지만 하시면 된다. 이런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이 단어가 애매하다 느끼는 모든 친구들은 자투리 시간에 자신만의 단어장을 본다. 영단어가 지겹다면 국어 문법이나 탐구 암기 영역을 가끔 외워도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자신에 대해 '대견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네라는 이 느낌, 나를 수능까지 이끌어주고 좋은 성적을 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3. How. 어떻게 외울 것인가.

선티는 '어원 활용'과 '연상 활용' 둘 다 적극적으로 하기를 추천한다. 둘 중에 뭐가 좋고 나쁜 건 없다. 그저 자신이 잘 외워지는 것으로 확실히 외우면 장땡.



키스 가이드 북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일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input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원보다는 연상법을 더 추천하는 편이다. 어원 활용도 해야 하지만, 모든 어원을 알 수도 없고 어원을 활용하기 힘든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연상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로 잘 안 외워지는 단어와, 헛갈리는 단어들을 외울 때 사용한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 직전까지, 자투리 시간에 단어를 외워야 한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3-A. 연상법.

대표적인 예로 788 영단어책이 가장 유명하다(이상한 연상으로 조금 논란이 있지만.. 차치하고 방법 그 자체만 보자). 모든 단어를 연상해서 외울 순 없고 **헛갈리거나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단어를 보고 혹은 읽고 '자신이 떠오르는 무언가와 연결해서 외우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이다. 그래야 평생 안 까먹는다. 예능 프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에서 서울대 치대 출신(중퇴?) 연예인 김정훈이 스페인어 단어를 이렇게 외우더라. 스페인어로 'nevar'가 '눈이 오다'는 동사인데, 딱 보니 '영단어 never'랑 비슷하네.. 지금은 여름이니까 눈이 절대(never) 오지 않지 이렇게 머리에 입력하는 거다. 저 프로가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김정훈은 이 단어를 안 까먹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 셉티 통역장교 시절 아이비리그 출신 동기도 군사용어 영단어를 외우는데 이걸 뭐 어원도 없고 그냥 쌤 acronym(두문자어)였기에 이렇게 외우더라. 터프한 친구라 욱을 섞어가면서 외우더라. 그러니 이 방식은 무슨 수준 낮은 무식한 친구들만 하는 방법이라는 선입견을 버리자.



키스 가이드 북



션티는 수험생 때 **ethics(윤리)**와 **ethnics(민족)**이 너무 헷갈려서 보다가(지금 보는 너도 헷갈리고 있다면, 어휘 더 탄탄히 해야 한다), 둘이 뭐가 다르지, 민족은 n이 있으니, n을 보고 수학의 극한이 떠올랐고, 그럼 n은 많다는 거네.. 하나의 민족은 사람 수가 많지 ㅎㅎ 이렇게 구분하고 10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한다. 남이 만들어준 연상법도 나쁘지 않지만(가사 단어 장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기억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 연상 고리를 만드는 재미를 느끼며 외우도록 해보자.

Ethnic



Ethic



3-B. 어원법.

접두어 + 어근 + 접미어. 영어단어는 rough하게 얘기하자면 앞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는 연상법으로 마구잡이로 최대한 넣으셔야 하지만, 어느 정도 외우게 되면 단어의 '조합'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우선 접두어, 접미어가 보이기 시작한다. 제일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un, in'이 붙으면 반대, re는 '다시'라는 것부터해서 'pre'나 'fore'이 붙으면 '미리'라는 뜻이고 접미어의 경우는 ness, tion, sion, ty가 붙으면 명사이고 less가 붙으면 '~가 없는'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접미어는 해당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많다. 아래 수능 수준에서 필요한 접두어, 접미어, 어근을 정리해놓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자주 자주 봐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하자.



키스 가이드 북



3-B-a. 접두어(prefix):

주로 의미를 반대, 부정으로 만든다. 혹은 '시간, 방향, 정도'의 의미를 더해준다.

The most common prefixes. 출처의 페이지를 선타가 수능에 맞게 가감,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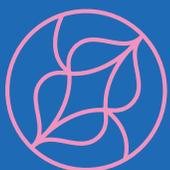
(출처: <https://dictionary.cambridge.org/grammar/british-grammar/prefixes>)

prefix	meaning	examples
anti-	against/opposed to (반대)	anti-government(반정부) anti-racist (반인종차별(주의))
auto-	self(자신)	autobiography(자서전) automobile(자동차)
de-	reverse or change (역 or 변화)	decontaminate(오염을 제거하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demotivate(의욕을 꺾다)
dis-	reverse or remove(역 or 제거)	disagree(동의하지 않다), displeasure(불쾌) disqualify(자격을 박탈하다)
down-	reduce or lower(감소 or 낮춤)	downgrade(격하시키다) downhearted(낙담한)
extra-	beyond(넘어선)	extraordinary(비상한) extraterrestrial(외계의)
hyper-	extreme(극도의)	hyperactive(활동 과잉의) hypertension(고혈압)
il-, im-, in-, ir-	not(아닐 불(不))	illegal(불법위), impossible(불가능한) insecure (불안정한), irregular (불규칙적인)

키스 가이드 북



prefix	meaning	examples
inter-	between(사이의, 상호의)	interactive(상호작용하는) international(국제적인)
mega-	very big(매우 큰) important(중요한)	mega-deal (대형 거래)
mid-	middle (중간)	midday(정오), midnight(자정) mid-October(10월 중순)
mis-	incorrectly(부정확하게) badly(나쁘게)	misaligned(어긋난) mislead(오도하다(잘못 이끌다)) misspelt(철자가 잘못된)
non-	not (아닐 미(未))	non-payment(미지급) non-smoking(금연)
over-	too much(과도한)	overrate(과대평가하다) overcharge(금액을 많이 청구하다)
out-	go beyond(넘어가다)	outdo(능가하다) out-perform(더 잘하다) outrun(더 빨리 달리다)
post-	after (후(後))	post-election(총선 후) post-war(전후)
pre-	before (전(前))	prehistoric(선사시대의) pre-war(전쟁 전의)
pro-	in favour of(~을 찬성하여, 친(親))	pro-democracy(친민주주의)
re-	again(다시, 재(再))	reconsider(재고하다(다시 고려하다)) redo(다시 하다)
semi-	half(반(半))	semicircle(반원) semiconductor(반도체)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영어연구소

Chapter. 2

구문

-
- 1. 명사
 - 2. 동사
 - 3. 수식
 - 4. 자주 쓰이는 구문



키스 가이드 북



Chapter 2. 구문. 한국어로? 영어로?

단어가 어느 정도 되면 활용해서 **문장들을 해석**해본다. 중요한 건 이제 외운 단어의 일차적인 뜻에서 **벗어나려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한다. 이걸 수업 때 계속 언급할 것. 그리고 이제 '구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 문장 구조, 성분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선티는 이 '구문'은 '기본만 알고나서, 이를 활용해 최대한 자신이 한국어로 해석을 많이 많이 많이 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채워가는 것이지. 사실 막히는 게 단어, 표현을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구문을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 기본 구문 강의를 하나 듣고 그 교재를, 혹은 시중의 기본 구문 교재 하나를 여러 번 복습하는 정도면 이론적인 측면은 끝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는 알고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다.(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주어, 보어, 목적어, 접속사, 관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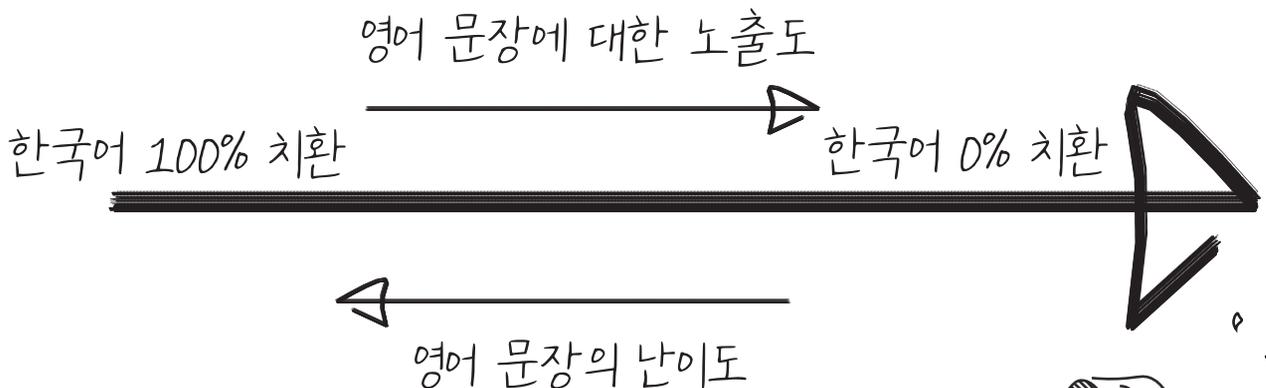
결국은, 어떤 단어,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어'이다. 따라서 영어의 일차적 의미에 집착하지 말고 문맥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국어가 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하면 많은 해석이 쉬워진다. 이는 수업 때도 그 방법을 왕왕 언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 여기서 바로 영어의 고인물 질문 중 하나인,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한국어로 받아들여야 하나요?**에 대한 답이 된다. 딱 정해준다. **한국어로 해석하자.**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니 잘 읽자. 영어 모의고사 5등급에서 시작해서 국내파 통역장교까지 이룬 굴지의 국내파 영어 고수로서 깨달은 바를 얘기하건대, 이건 **단계적인** 것이다. What's your name? 방금 네가 이 문장을 한국어로 바꿔 이해했나? '네 이름이 뭐니?'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을지 몰라도, 이는 정말 자동적으로 떠오른 것일 뿐이고, 사실상 너는 이 문장을 거의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근데 아마, 우리는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때 'What's your name?'은 '네 이름이 뭐니?'라고 '한국어 뜻'으로 처음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What's your name?'은 '네 이름이 뭐니?'라는 한국어로 인식을 하고, 그 후 이 문장에 '수많은'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 영어라는 transition 과정이 굉장히 짧아지며 사실상 영어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됐을까?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뇌가 사실상 영어로 인식하는 문장도 있고, '한국어로 거의 100% 바꿔야' 간신히 이해하는 문장도 있다는 것이다. 수능영어는 어느 쪽일까? 당연히 후자이다. 어쨌든 난이도 중 이상 지문의 경우 정말 원서 그대로 가져오거든. 이 난이도의 단어, 문장을 영어 그대로 인식할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그 노출 정도가 영어 특기자 준비생 정도는 되어야 한다(수능 외 영어 시험 만점 수준). 그러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겠다. 저런 친구들은 이미 고정 100 혹은 한 개 틀리는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리하자.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능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받아들인'다는 태도를 default 값으로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준 높은 논리적 영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소에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연습을 자주하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어쨌든 한국어로 빠르게 전환하며 가는 느낌이 맞다. 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듣기, 목적, 쉬운 대의파악, 3문제 장문 등 무난한 지문들은 사실상 문장을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영어에 대한 노출 정도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실력이 늘었다는 것이니 칭찬해주도록 하자.



키스 가이드 북



자 이제 구문의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 "아.. 구문.. 뭔가 머리가 아플 거 같아... 지겨울 거 같아..." **졸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셉티는 수험생 시절에도 영어 인강을 들은 적이 없고 강의 준비를 할 때에도 타 강사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구문에 관해서는 과외를 많이 하던 대학교 시절 1001문을 가지고 가르쳤었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온전히 추측일 뿐이다 00) 아마 대부분의 쌤들이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느낌에서 구문을 가르치시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가르치려면 수능영어 강사 안 했다. 똑같이 안 가르치려고 타 강사의 강의를 1도 듣지 않았고. 자, 셉티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이다. 나는 이 모토에 맞추어 기본 구문 이론도 아주 **단순하게** 알려줄 것이다. 이 simplified 된 구조 정도만 이해하고 나서는, EBS 지문에 있는 문장들로 계속 **실전** 해석을 하고 셉티 해석을 참고하며 **교정**할 뿐이다. 복싱으로 치자면 내가 선호하는 방향은, 혼자서 계속 자잘한 기술들만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술들만 익힌 다음 계속해서 **실전 스파링**을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가장 실력을 빠르게 늘려준다 생각하고.

자, 중요한 얘기. 영어 문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자. 구문책에 있는 여러 용어들은 고이 접어 날려두고, 정말 최소한의 용어만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영어 문장 해석 원리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문장을 커버하는 그 원리를 알려주고자 한다. 대부분의 영어 문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키스 가이드 북



보통 명사 1번을 주어라고 하고, 명사 2번 자리에 오는 걸 보어, 목적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보어의 개념도 몰라도 '해석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서, 셴티는 목적어 보어를 명사 2번으로 총칭하겠다.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은, 'A가 B를 C한다!' 이 느낌으로 구성된다. AB가 명사이고 C가 동사라고 보면 된다. 이 느낌을 절대 잊지 말자. A가 B를 C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된다는 것. 이제 명사, 동사, 수식 순으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자.

1. 명사

명사가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설명하진 않겠다. 여러분이 어렵듯이 알고 있는' 그것이 맞다. 명사가 문장의 처음에 오면 '주어라고 하므로, 한국어 조사 '은/는/이/가'를 붙여 해석한다. 다만 이 명사 자리에 '문장의 형태도 올 수 있고, 이 경우가 해석을 조금 복잡하게 만든다. 쓸 거 없다. 한국어의 경우 이렇게 문장이 명사화되면 보통 '~것을 붙인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가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는지 파악하고, 그 형태가 나올 때 '~것을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문장을 명사화 시켜주는 형태는 아래와 같다(Ving와 To v 형태도 동사가 있으므로, 정확한 명칭은 '구이지만 이런 거 갖다 버리고, 그냥 문장에 속하는 것으로 보겠다). 아래 형태가 명사 1번 자리에 오면 주어처럼 해석한다.





명사 1번

형태	해석
Ving	~하는 것은
To v	~하는 것은
That S V (that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법 문제에서도 왕왕 선지로 나오니 꼭 기억! 아래 W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Which S V	~인지 아닌지는
When S V	언제 ~하는지는
Where S V	어디서 ~하는지는
What S V	~하는 것은
How S V How 형/부 S V	어떻게 ~하는지는 (~하는 방법은) 얼마나 ~하는지는
Why S V	왜 ~하는지는 (~하는 이유는)

ing 형태가 다른 형태에 비해 글자가 두 배인 것은, 그만큼 '주어 즉 명사 1번 자리'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toV의 경우 문두에 오면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먼저 떠오르기 쉬워서 주어 자리에 잘 안 쓰이는 편이고(그래도 당연히, 쓰이긴 한다), that절도 빈도수가 주어 자리보다는 명사 2번 자리에 많이 쓰인다. 명사 2번 자리에는 보통 목적어가 오므로 '을(를)'을 붙여 해석하면 되고, 동사가 be동사일 때는 '~이다', 그 외 동사는 그 동사의 해석에 맞춰 해석하면 된다. 역시 that절이 목적어 자리에 많이 오는 편이다.



명사 2번

형태	해석
That S V	~하는 것을
To v	~하는 것을
Ving	~하는 것을
Which S V	~인지 아닌지를
When S V	언제 ~하는지를
Where S V	어디서 ~하는지를
What S V	~하는 것을
How S V How 형/부 S V	어떻게 ~하는지를(~하는 방법을) 얼마나 ~하는지를
Why S V	왜 ~하는지를(~하는 이유를)

2. 동사

영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품사는 '동사'다. 즉 우리는 주어 그리고 동사를 보고 이 문장의 전체 모습을 이미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문장의 앞부분을 읽으면 이 문장의 뒷부분을 예상하면서 해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5형식'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이 5형식이 바로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을 나눈 것이다.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뭐 이미 고1, 고2 시절 이 형식들에 대해 잘 학습하였고 적용 연습을 많이 하였다면 좋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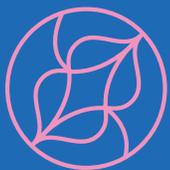


그렇지 않은, 소위 너무나 기본이 없이 지맘대로 해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simplified 된 영어 문장의 두 가지 구조를 알려주고자 한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보자면 두 종류로 나뉜다.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전자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고, 후자를 자동사라고 한다.

1. S V X(없음의 X이다. SVX는 방금 내가 만든 거다.)

2. S V O(목적어의 O)이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목적어의 유무이므로 해석 시 동사 뒤에 목적어를 만드는 한국어 조사인 '을(를)'을 붙이냐 안 붙이냐의 차이이다. 이렇게 동사를 보고 뒤에 '을(를)'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만 신속하게 되어도, 즉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만 알아도 해석의 속도와 질이 아주 좋아진다. 나는 이제 동사를 보고 뒤에 목적어가 오는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야 하는 질문. "쌤, 그럼 동사를 외울 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외워야 하는 건가요?" 답은 sadly, yes다. 헌데 우리 여집합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하자면, 자동사를 다 외우면 타동사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타동사를 다 외우면 자동사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행히, 영어에서는 자동사가 타동사보다 훨씬 적다. 파레토 법칙 마냥 2:8 정도의 느낌이다. 그러니 우리는 수능 수준에서 자주 쓰이는 '자동사를 외워두면, 80% 정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즉 '을(를)'을 붙여서 해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 좋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자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 형식 공부에서는 '1, 2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이다. 팁이 있다면, 자동사의 경우, 목적어가 없는만큼 '주어에 더 무게가 실리는 친구들이다. 예를 들어 live, die와 같은 동사들을 보자. 보통 '내가' 살고 죽지, 살고 죽는 것으로 누군가에게(목적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영어연구소

Chapter. 4

독해

Part 1. AB

Part 2. PS





Chapter 4. 독해(KISS LOGIC)

수능영어의 마지막 단계, 독해이다. 어휘가 한 단어에 관한 것이었고, 구문이 한 문장에 관한 것이었다면, 독해란 한 지문에 관한 것이다. 단어와 문장 해석이 나뉘는 수능 지문의 7, 80% 정도 무난히 잘 된다면,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에 집중해도 좋다. 딱 이런 친구들이다. '지문 단어도 거의 다 알겠고, 해석도 거진 되는데, 읽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답을 못그르겠어요.' 이제 독해를 연습하면 된다. '하나의 지문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답과 연결시키는지.'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없이 읽어서'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국어 비문학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읽어야 읽고나서 남는 게 있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더라도 어디로 돌아갈지를 아는 것이다. "아니 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나요?" 을 친구가 국어 혹은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는 생각이다. 영어로 돌아오자. 하나의 영어 지문을 읽고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기억하려고 하고, 다 이해하려고 해서'이다. 특히 수능영어의 경우 이런 필요가 없다. 왜? 아니 한 지문 읽고 한 문제, 푸는 거잖아. 그 지문의 핵심 내용, 즉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 나는, 모든 정보를 기억할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진술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 "그럼 읽으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아나요?"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또 그 답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 지문의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논리적 방법론'을 KISS Logic이라 부르겠다. 이는 KISS EBS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라임을 맞춰 지은 것이 아니다.

키스 가이드 북



사실 주간 KISS EBS의 KISS는 Keep It Slow but Steady(3월부터 수능까지 꾸준히 EBS로 영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고, 이 KISS Logic의 KISS는 Keep It Short and Simple로, '가장 심플한 논리적 도구라고 보기에 나온 이름이다. 보통 이렇게 독해에 관한 글의 전개방식을 설명할 때, 책이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전개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많은 전개방식이 '참고'는 될지언정, 그 많은 전개방식을 '체화'하여 실전에서 써먹기는 참 힘든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섀티는 가장 심플하게도, '두 가지 도구만 사용하여 일관되게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 답과 연결시키고자 한다. 지금까지 현장 강의를 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KISS EBS를 보고 왔다가 오히려 이 KISS Logic의 방법론과 강의력에 반했다는 얘기를 했으니, 믿고 보고 따라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좋다. 그 두 가지 도구는, 바로 AB와 PS이다. 두 개다 두 개. 우리는 영어 지문을 읽으며, 이 두 가지 도구만 생각하면서 독해를 하면 되는 것이다.

AB, PS

Part 1. AB

첫번째 KISS LOGIC 도구, AB이다. 섀티가 생각하는, 수능영어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논리이다. 아마 이 AB라는 표현이 익숙할 것이다. 영어의 표현 중에 이 AB를 사용해 외우는 쉬운 표현이 있지 않나? 바로 not (only) A but (also) B이다.

not (only) A but (also) B



키스 가이드 북



이 표현이,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영어 지문을 전개하는 가장 '핵심' 논리라는 것이다. 필자가 해당 영어 지문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자신이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 단순히 그것이 중요하다고만 말하지 않는다. 이와 대비되는 '덜 중요한' 대상을 등장시켜,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덜 중요한 대상이 바로 A'가 되는 것이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대상(진술)'이 B가 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어떤 대단한 논리적 도구라든지 표현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취향, 주장 등을 이러한 식으로 표현한다.

"야 부먹보단 짹먹 아님?"

"민트초코보다는 쿠키앤크림 아님?"

"아이돌그룹 A보다는 아이돌그룹 B 아님?"

각각의 문장은, '짹먹, 쿠키앤크림, 아이돌그룹 B(누구인지는 여러분 마음 속에)'가 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근데 그냥 "짹먹이 최고지" "쿠키앤크림이 최고지" "아이돌그룹 B"가 최고지,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립되는 대상을 등장시켜 자신의 '주장'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수능영어 지문이 바로 이렇다. 대의파악, 어휘, 빈칸, 순서, 문삽, 요약, 2문제 장문의 경우 거의 십중팔구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선타가 평가원 기출을 풀면, 시험지 지문에는 거의 'AB'만 적혀있다. 그 B가 필자가 주장하는 대상(진술)이고,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혹은 빈칸의 경우, 짹먹/쿠키앤크림/아이돌그룹 B를 강조하는 문장이 답인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부먹/민초/아이돌그룹 A를 '까는' 부분이 답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어쨌든 답은 A, B 중에 하나인 것이고, 글을 읽으며 우리의 목적은 '지문에서 필자가 말하는 AB를 찾는 것이다.'

키스 가이드 북



무엇이 A고 무엇이 B인지 찾으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단서가 바로 'not' A 'but' B라는 것이다. 지문에서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나오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A와 B의 개념을 잡는 것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2020 수능 어법 문제다. 이 지문은 어려운 용어들과 추상성으로 어려운 EBS 지문이었는 데, 어법 문제가 아니라 주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한 번 바라 보자.

Among hunter-gatherers, animals are not only good to eat, they are also good to think about, as Claude Lévi-Strauss has observed. (20.수능.29)

수렵인들 사이에서는, 동물이 먹기 좋은 대상일 뿐만 아니라, / 생각하기 좋은 대상이다 / C가 관찰했듯.

자 위는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석이다. 저렇게 했으면, 잘, 한 거다. 헌데 저렇게 해석하고 그냥 '아.무.생각.없.이.넘.어.가.면.지.문.을.다.읽.고.남.는.게.없.는.것.이.다.' 해석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었어야 하고,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오?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아네? 중요한 문장이구나. 집중해서 읽으며 AB를 파악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문장의 AB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위 문장에는 필자가 주장하는 동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담겨있다. A: 먹기 좋은 대상 vs. B: 생각하기 좋은 대상.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동물이 생각하기 좋은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지문은, 토테미즘에 관한 지문으로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키스 가이드 북



수능영어의 본질이 not A but B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줄까? 아래 지문을 보자. 2020학년도 수능영어 비연계 빈칸 33번 문제이다. '대놓고' not A but B자리의 B를 빈칸으로 물어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지문을 읽으며 중요한 문장에서 무엇이 A이고 무엇이 B인지 체크하면서 A 혹은 B로 grouping하면서 읽으면 되는 것이다.

33.

The future of our high-tech goods may lie not in the limitations of our minds, but in _____ . In previous eras, such as the Iron Age and the Bronze Age, the discovery of new elements brought forth seemingly unending numbers of new inventions. Now the combinations may truly be unending. We are now witnessing a fundamental shift in our resource demands.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have we used more elements, in more combinations, and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Our ingenuity will soon outpace our material supplies. This situation comes at a defining moment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Fortunately, rare metals are key ingredients in green technologies such as electric car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They help to convert free natural resources like the sun and wind into the power that fuels our lives. But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3 점]

* ingenuity: 창의력

- ①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 ② our effort to make them as eco-friendly as possible
- ③ the wider distribu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 ④ governmental policies not to limit resource supplies
- ⑤ the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키스 가이드 북



빈칸 부분은 not A but B이지만, 이 지문의 전체 논리 흐름은 사실 PS에 더 가깝다. 따라서 해당 지문에 대한 해설은 뒤쪽 PS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AB를 쉬운 지문부터 연습해보자. 참고로 이 논리는, 고1, 고2, 옛날 수능 할 것 없이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냥, 영어가 제일 좋아하는 '주장 패턴'이기 때문에. 셉티는 **팁스** 시험 때도 이렇게 풀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어 논설문에서 필자는 B를 주장하기 위해 A 주장을 내세우고, 이 A 주장은 여러분이 많이 많이 들어봤을 바로 통념(bias, prejudice, common sense, general belief)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문에서 통념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 A라는 것을 인식하고, B는 그와는 반대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A를 통해 B를 바로 추론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휘 대칭성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무슨 얘기가. 정말 쉽게 말해서 지문의 서두에 '고대 얘기를 꺼냈어, 그럼 그 뒤 어딘가에 어떤 대상을 가져올 확률이 높을까? Right. 연대. 그리고 필자는 둘 중에 어디가 더 좋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겠지. 이러한 상식적인 개념의 대립성을 계속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너무나너무너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slow, low vs. fast, high

general(일반적) vs. specific(구체적)

past(과거) vs. present(현재)

reason(이성), logic(논리) vs. emotion(감정), instinct(본능)

clear(명확한) vs. ambiguous(애매모호한)

* individual(개인) vs. collective, society(집단, 사회): 수능영어에서 아주 중요.

* objectivity(객관성) vs. subjectivity(주관성): 수능영어에서 아주 중요.



키스 가이드 북



science(과학) vs. art(예술)

process(과정) vs. result(결과)

gradual(점진적인) vs. radical(급진적인)

memorizing(암기) vs. understanding(이해)

conservative(보수적인) vs. progressive(급진적인)

selfish(egotistic= 이기주의의) vs. selfless(altruistic= 이타주의의)

horizontal(수평의) vs. vertical(수직의)

correlation(상관관계) vs. causation(인과관계)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위 AB의 예시들이 수능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AB의 개념이니 기억해두도록 하자. 제발 보면서 **느껴보자**. 전자를 보고 후자가 자연스레 떠오르는지. 한국어로 '점진적'을 보면 '급진적'이 떠올라야 한다. 마치 온건개화파가 있으면 급진개화파가 있듯. 그래야 내가 이 지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필자가 무슨 말을 할지 '예측'이 되면서 지문을 '요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이 '대립'을 집요하게 찾으려 하자. 어떤 대상(주장)과 어떤 대상(주장)이 대립되는지. 하나 조심할 부분은, 자신의 '선입견'으로 마음대로 필자가 무엇을 주장하는 쪽인지 재단하지 말자. 필자는 온건개화파일수도, 급진개화파일수도 있다는 것. 또한 필자는 해당 글의 '신(god)'임을 명심하자. 하나의 글 안에서 필자는 신이 맞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이니까. 따라서 필자가 까는 대상(주장, A)과 필자가 찬성하는 대상(주장, B)을 끊임없이 구분해보도록 하자. 답은 결국 AB 속에서 노는 것이니.

동념(A) vs. 필자(신=B)

키스 가이드 북



다시 한번 강조하면, not A but B 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이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 표현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문 자체의 논리가 not A but B' 라는 것을 명심하자. 글을 읽으며 나의 목적은, 이 not A but B 라는 하나의 핵심 주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래 따끈따근한 2019년 11월 고 2 영어 20번 지문을 보자. 1분 줄 테니(부족한 친구들은 1분 30초) 풀어보도록 하자.

20.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ver the years, memory has been given a bad name. It has been associated with rote learning and cramming information into your brain. Educators have said that understanding is the key to learning, but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if you can't remember it? We have all had this experience: we recognize and understand information but can't recall it when we need it. For example, how many jokes do you know? You've probably heard thousands, but you can only recall about four or five right now.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remembering your four jokes and recognizing or understanding thousands. Understanding doesn't create use: only when you can instantly recall what you understand, and practice using your remembered understanding, do you achieve mastery. Memory means storing what you have learned; otherwise, why would we bother learning in the first place?

- ① 창의력 신장을 학습 활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②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 ③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해야 한다.
- ④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농담을 알고 있어야 한다.
- ⑤ 학습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키스 가이드 북



답은? 2번. 어떻게 풀었을까? 또 아무 생각 없이 풀었을까? 물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도 아무 생각없이 '그림그꿀'을 한 친구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실전에서는 풀더라도 '감으로' '100% 확신하지 못하고' 찍어서 불안한 친구들도 많을 것이다. 이럴 때 내가 정확하게 AB를 잡고, 선지와 연결시켜 100% 확신을 갖고 푸는 것이 바로 **KISS Logic**이다. 자 그럼, 말해보자. 이 지문의 not A but B는 무엇인가? 이렇게 쉬운 대의파악 지문이든, 어려운 빈칸 지문이든 내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 지문의 핵심 논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not A but B로 이를 하는 것이고. 이 지문의 필자의 주장은, **'not only 이해, but also 기억'**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정답 선지인 2번을 보자. '유일하게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3번이 그나마 '기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기억력 저하라는 문제도 지문에 나와있지 않고, 해당 선지는 '일상'에 더 포인트가 있는 문장이다. 자 그럼 읽으면서 '어떻게' AB를 포착하고 **grouping**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Over the years, memory has been given a bad name.

지난 몇 년 간, 기억은 오명이 있었다.

→ '기억이 오명이 있었다. 잘못된 이름.. 나쁜 이름.. 이 얘기를 왜 할까? 생각 좀 하자. 필자 생각에는 기억이 bad가 아니거든. 이미 AB논리가 체화된 친구들, 혹은 글을 읽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이 문장을 읽고도 이 문장이 '동념'이거나 인식을 하고 필자의 핵심 주장 추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필자 생각엔 기억이 bad한 게 아니라 good하다는 것. 이걸 처음에 잡고, 이 frame 속에서 쪽 읽는 친구와 아닌 친구와는, 지문을 이해하는 속도도 이해의 정도도 그 급이 다르다.



키스 가이드 북



It has been associated with rote learning and cramming information into your brain.

기억은 연관되어 왔다 / 암기 학습과 그리고 정보를 뇌에 집어넣는 것과.

→ 과거의 통념(기억을 나쁜 것으로 본다는) 진술 이어짐.

Educators have said that understanding is the key to learning, but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if you can't remember it?

교육자들은 말해왔다 / 이해가 학습에 핵심이지만, / 무언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 그것을 기억할 수 없다면?

→ **중요!** 앞서 필자가 계속해서 '기억의 통념'에 대해 이야기 했다. 사람들은 기억을 bad 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필자는 기억을 good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영어는 이 '기억은 좋은 것'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대립항'을 두어서. 그래서 처음에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다면 뒤에 높은 확률로 '기억'과 대비되는 무엇을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읽고 읽었어야 하고, 그렇게 읽었다면 이 문장에서 '이해 (understanding)'를 마주하는 순간 **유레카!**를 외쳤어야 한다. 왜냐면 여기서 이 지문은 끝났거든. 아, 이 지문은 필자가 ('교육자들의 통념은) **이해(A)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사실 기억(B)도 중요함** oo 을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하다. 정말 정말 정말. **지문의 마지막까지 역접 (but, however)이 없는 한,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다.** 즉, 사람들이 보통 이해가 기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자는 오히려 기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키스 가이드 북



그러니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하나하나 해석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를 '확인' 한다는 느낌이다. 그렇게 확인하면서 내려가다가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확정, 내리고 답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미 필자의 핵심 주장을 잡고 읽었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속도와 이해의 질이 다르다**. 내가 지문을 꼭 잡고 읽는 것이다. 지문을 잡지 못하고 허공에 새도복싱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을 보자.

We have all had this experience: we recognize and understand information but can't recall it when we need it.

우리는 모두 이 경험을 했다: / 우리는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하지만 / 필요할 때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 내가 AB의 개념 범주를 각각 '이해(A)', '기억(B)'으로 잡았기 때문에, 각 범주로 grouping이 가능하다. recognize and understand는 A고 recall은 B에 해당되겠다. B가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이고, 그러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

For example, how many jokes do you know? You've probably heard thousands, but you can only recall about four or five right now.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remembering your four jokes and recognizing or understanding thousands.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농담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까? / 아마 수천개는 들었겠지만, / 지금 당장은 4, 5개 정도만 기억할 수 있다. / 큰 차이가 있다 / 농담을 4개 기억하는 것과 수천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키스 가이드 북



→ 여기서 셉티는 'for example' 을 보자마자 **이 예시 부분을 사실 읽지 않았다**. 왜 읽을까? 예를 든 대상(주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읽는 것인데, 나는 이미 이해하고 있다. 필자의 주장은 '이해보다 기억이 더 중요하다' 는 것. 그러니 이 예시는 그것에 대한 것이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마지막 확정만 하자.**

Understanding doesn't create use; only when you can instantly recall what you understand, and practice using your remembered understanding, do you achieve mastery. Memory means storing what you have learned; otherwise, why would we bother learning in the first place?

이해는 사용(활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 이해하는 것을 즉시 기억할 수 있을 때만, / 그리고 기억한 이해를 사용해 연습할 때만, / 숙달하게 된다. / 기억은 배운 것을 저장하는 걸 의미한다; /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우리가 왜 배우려 애를 쓸까?

→ 수능영어 지문은 그 자체로 서본결이 있고, 따라서 마지막 부분 '결' 확인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AB 확인을 해보자. '이해는 활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이해를 소위 '까고' 있다. 그러니 이해가 A 맞네. 그리고 언제만 (only when) master 가 된다고? 바로 기억(recall=B) 할 때만. 마지막에도 의문문으로 '기억을 안 한다면 굳이 왜 배움' 하며 기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마무리 짓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문의 1/3 지점에서 '이해보다 기억이 중요함 00' 을 잡았다면, 이 마지막 부분까지 checking 만 하며 후루룩 내려와서 답과 연결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문의 AB 를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키스 가이드 북



Over the years, memory has been given a bad name(첫 문장부터 memory를 B로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치자 ㅎㅎ). It has been associated with rote learning and cramming information into your brain. Educators(A) have said that understanding(A) is the key to learning, but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if you can't remember(B) it? We have all had this experience: we recognize and understand information(A) but can't recall it(B) when we need it. For example, how many jokes do you know? You've probably heard thousands, but you can only recall about four or five right now.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remembering your four jokes and recognizing or understanding thousands. Understanding(A) doesn't create use: only when you can instantly recall(B) what you understand, and practice using your remembered understanding, do you achieve mastery. Memory(B) means storing what you have learned; otherwise, why would we bother learning in the first place?

감이 좀 왔을까?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를 급 올려서, 2019학년도 수능 빈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자. 명심하자. 논리가 복잡해지는 게 아니다.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은 not A but B일 뿐이다. 다만 앞선 고2 문제와의 차이점은, 단어 '구문' 소재 정도가 되겠다. 풀지 말고 모르는 단어가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A는 뭐고 B는 뭘까에 집중하며 글을 읽어내려가는 것이다. 2분을 재고 풀어보자. 아직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3분.